

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

이 보고서는 2023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「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」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.

박 성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
문 창 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
박 윤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
왕 승 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연구원

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IMF, OECD 등이 공동 제정한 국제통계작성기준(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: 이하, PSDS)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, 포괄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를 산출하고 있다.

2022년 공공부문 부채(D3)는 1,588.7조원(GDP 대비 73.5%)이고, 일반정부 부채(D2)는 1,157.2조원(GDP 대비 53.5%)으로 산출되었다.

- **국가채무(D1)**: GFSM 1986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회계·기금의 현금주의 국가채무(국채, 차입금, 국고채무부담행위)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정보로 활용됨
- **일반정부 부채(D2)**: PSDS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(중앙정부, 지방정부, 비영리공공기관) 부채로 국제기구(OECD) 제출 및 국제비교용으로 활용됨
- **공공부문 부채(D3)**: PSDS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로 기존 일반정부부채(D2)에 비금융공기업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하며,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으로 활용하나 이 통계를 산출하는 국가가 OECD 8개 회원국에 불과하여 국제 비교에 한계가 있음

1 부채의 종류

2022년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(총부채¹⁾)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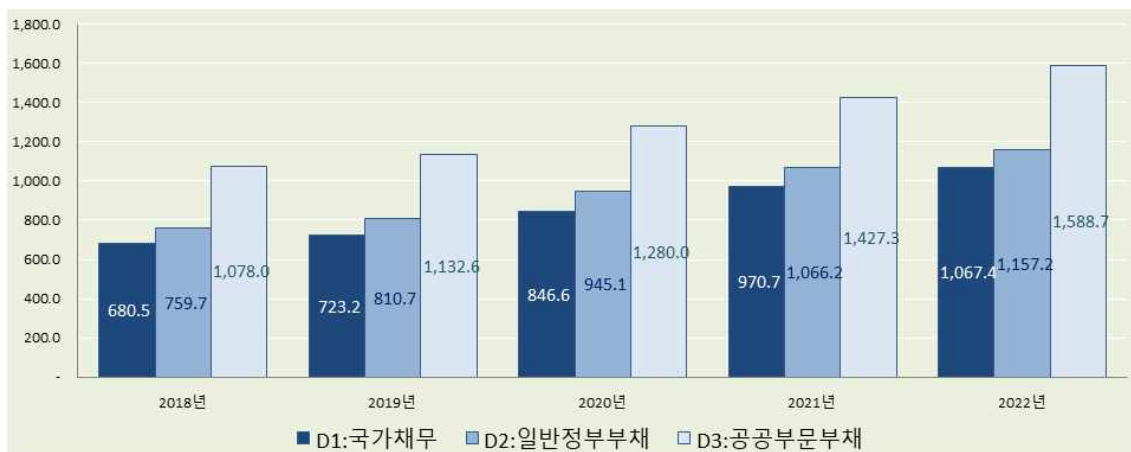
유형	2022년 규모 (GDP대비)	포괄범위	산출기준	활용
국가채무 (D1)	1,067.4조원 (49.4%)	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·기금	국가재정법 현금주의	국가재정운영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
일반정부 부채 (D2)	1,157.2조원 (53.5%)	D1+비영리공공기관 (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장학재단 등)	PSDS 발생주의	국제 비교 (IMF, OECD)
공공부문 부채 (D3)	1,588.7조원 (73.5%)	D2+비금융공기업 (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)	PSDS 발생주의	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

1) 총부채(Gross Debt Liabilities)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, 채무상품(Debt Instruments)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, 차입금,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

우리나라의 부채 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최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,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8년 759.7조원에서 2022년 1,157.2조원으로 증가(연평균 11.1%)하였고, D3는 1,078.0조원에서 1,588.7조원으로 증가함(연평균 10.2%).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가 2022년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임

<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5개년 추세 >

(단위: 조원)



2 D1 분석

2022년의 D1은 1,067.4조원(GDP 대비 49.4%)으로 전년 대비 96.7조원(GDP 대비 비중 2.7%p) 증가하였으며,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(82.6조원) 및 외환시장 안정(1.3조원)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(93.8조원)에 주로 기인함

☞ D1은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로 크게 증가*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 지속으로 2022년까지 그 증가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됨

* 2019년 42.7조(1.7%p), 2020년 123.4조(6.0%p), 2021년 124.1조(3.0%p), 2022년 96.7조(2.7%p) 증가

<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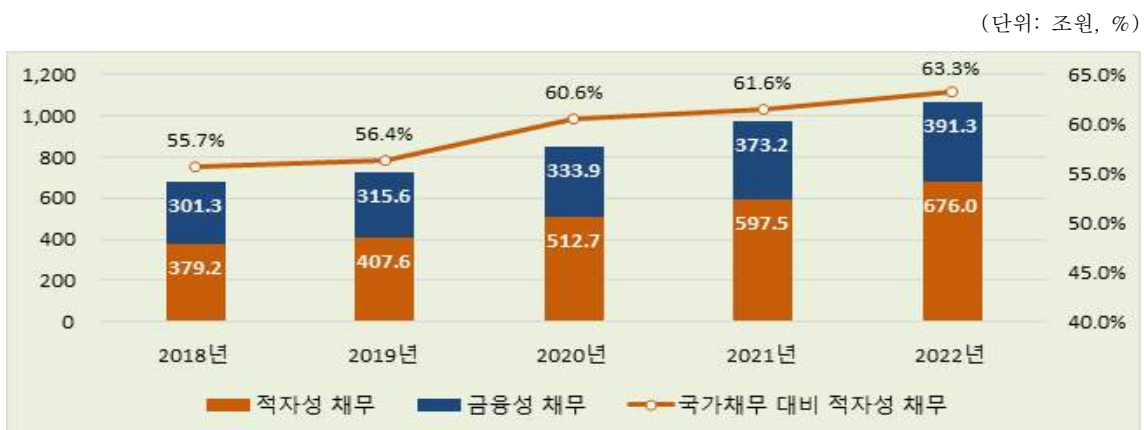


출처: 기획재정부, 『월간 재정동향』, 2024-2월 VOL.121

☞ D1은 적자성 채무*와 금융성 채무*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, 2022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63.3%로 2018년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

* 적자성 채무: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, 금융성 채무: 자산매각,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

<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추세 분석 >



출처: e-나라지표(<https://www.index.go.kr>, 2024.2.5. '국가채무 추이'로 조회)

3 D2 분석

1 증감분석

2022년의 D2는 1,157.2조원(GDP 대비 53.5%)으로 전년 대비 90.9조원(GDP 대비 비중 2.2%p) 증가하였으며, 증가 원인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중앙정부 부채(1,104.2조원)는 전년(1,016.2조원) 대비 88.1조원 증가함. 일반회계 적자보전·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및 공채 등 채무증권이 87.8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이 1.1조원 감소하였음

지방정부 부채(72.8조원)는 전년(69.9조원) 대비 2.9조원 증가함.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,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가 2.6조원 증가한 반면, 교육자치단체는 차입금 및 민자사업(BTL) 부채 감소로 부채가 0.9조원 감소함

D2는 2018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특히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확장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부채 증가폭은 11.4%p로 크게 증가함

<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>



② 국제동향

IMF Fiscal Monitor Advanced Economies(이하 ‘선진국’이라 함) 자료를 이용해 GDP 대비 D2 비율을 국제비교 해보면 우리나라(53.5%)는 선진국 전체 평균(112.3%)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한편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선진국 평균의 경우 코로나 대응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가 2020년(122.9%)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유의적인 관리가 필요함

< 일반정부 총부채(D2)의 국제 비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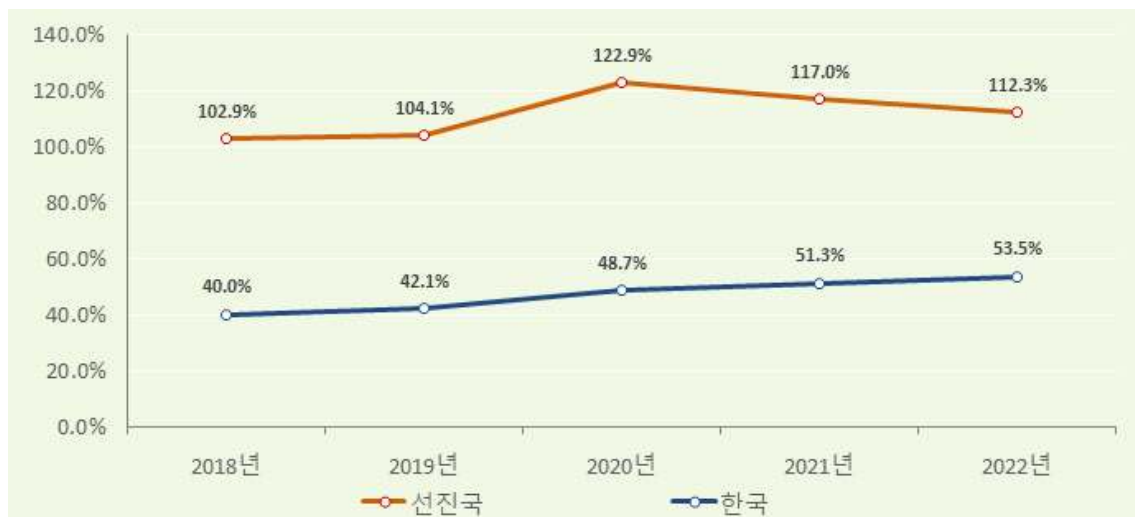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 %)



출처: IMF Fiscal Monitor('23.10) 「Table A7. Advanced Economies: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」,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(D2) 기준,

< 일반정부 총부채(D2)의 5개년 추세 비교 >

(단위: GDP 대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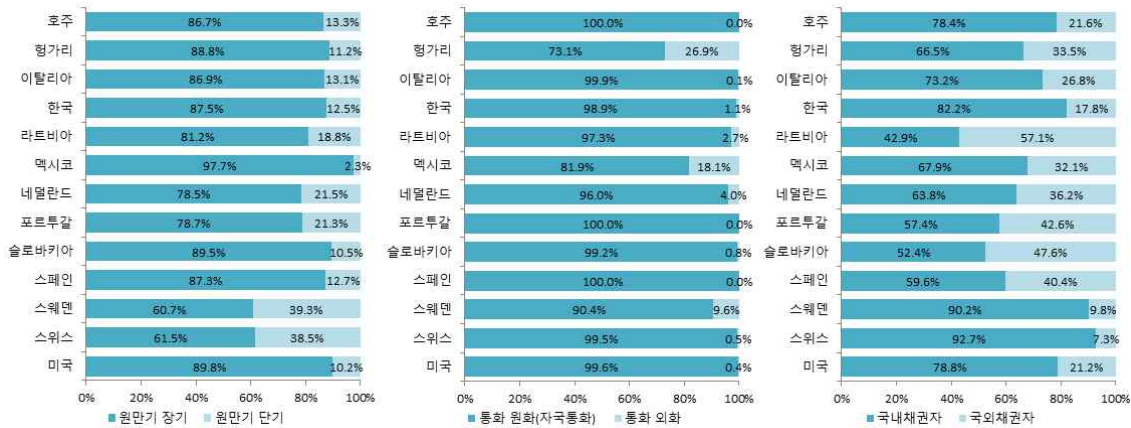


출처: IMF Fiscal Monitor('23.10) 「Table A7. Advanced Economies: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」,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(D2) 기준

부채유형별 추가 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만기별(장기/단기), 통화별(자국/외화), 채권자 거주지별(국내/국외)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장기부채(87.5%), 자국통화(98.9%), 국내채권자 보유(82.2%)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 일반정부부문 부채별(D2) 비교 >

(단위: %)



출처: OECD.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

(원만기별)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,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97.7%인 반면 단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39.3%임. 단기부채가 많으면,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

(통화별) 대부분 원화(자국통화)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, 원화(자국통화)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, 포르투갈, 스페인으로 100%인 반면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26.9%의 비중을 보임. 외화 부채가 많으면,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

(채권자 거주지별)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나, 그렇지 않은 국가도 일부 있음.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2.7%이며,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57.1%임

4 D3 분석

1 증감분석

2022년의 D3는 1,588.7조원(GDP 대비 73.5%)으로 전년 대비 161.4조원(GDP 대비 비중 4.9%p) 증가함. 공공부문 부채 중 일반정부 부채(D2)는 전년 대비 90.9조원 증가하고,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77.7조원 증가함.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 46.2조원, 한국가스공사 17.1조원, 한국토지주택공사 6.5조원 등으로 주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에 기인함

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

<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>



2 국제동향

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임

< D3의 국제 비교 >



출처: OECD.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